

02 문장 부호

관련 내용 어법 기본 92p 참고

어법 기본 review

문장 부호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쌍점(:)

큰 따옴표(" "), 작은 따옴표('')

줄표(—), 붙임표(—)

출제 포인트

문장 부호의 적절한 쓰임을 묻는다.

Section
01

Section
02

Section
03

Section 02 국어 규범 해커스패스 공무원 국어 어법 완성

1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2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

1. 마침표(.) : ‘마침표’ 대신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 예
-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 제 손을 꼭 잡으세요.
 - 집으로 돌아갑시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붙임

1.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 예
-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원칙)
 -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허용)

2.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 예
-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원칙)
 -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허용)
 -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원칙)
 -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허용)
 -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원칙)
 -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허용)
 -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원칙)
 -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허용)

▶ 단, 제목이나 표어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예
- 압록강은 흐른다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건강한 몸 만들기

출제 키워드 문제

01 다음 중 문장 부호의 사용이 올바른 것은? 2005. 서울시 세무직 9급

- ① 그것 참 훌륭한(?) 태도야.
- ② 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
- ③ 손발(手足)
- ④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 ⑤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① 특정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에는 물음표를 소괄호 안에 쓴다.

▶ 오답 체크

- ② 커피(coffee) :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는 소괄호를 쓴다.
- ③ 손발[手足] :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
- ④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는 작은따옴표를 쓴다.
- ⑤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는 소괄호를 쓴다.

출제 키워드 문제

02 다음 중 문장 부호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2002, 서울시 9급

- ①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다.
- ② 8.15 광복
- ③ 다시 보자, 한강수야.
- ④ 나이[年齡]
- 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출제 당시에는 ②가 답으로, '8·15 광복'으로 적는 것이 옳은 표기였다. 그러나 2014년 10월 27일에 고시된 한글 맞춤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는 마침표와 가운데점을 모두 쓸 수 있으므로 '8.15 광복'도 옳은 표기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답이 없다.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예 1919. 3. 1. 10. 1. ~ 10. 12.

(3)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예 3.1 운동 8.15 광복

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데점을 쓸 수 있다.

예 3·1 운동 8·15 광복

(4)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예 가. 인명 가. 머리말 1. 서론 1. 연구 목적

2. 물음표(?)

(1)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

예 • 점심 먹었어?

- 이번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 제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 다섯 살짜리 꼬마가 이 멀고 험한 곳까지 혼자 왔다?
- 지금? / 뭐라고? / 네?

붙임 1.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예 •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2.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예 • 도대체 이 일을 어쩔단 말이나.

•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 단,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 역사란 무엇인가

•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2)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

예 • 우리와 의견을 같이할 사람은 최 선생(?) 정도인 것 같다.

•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성적이군.

•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3)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 최치원(857~?)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쳤던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 조선 시대의 시인 강백(1690?~1777?)의 자는 자청이고, 호는 우곡이다.

3. 느낌표(!)

(1)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쓴다.

예 • 이거 정말 큰일이 났구나!

• 어머!

붙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느낌표 대신 쉼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

- 예 • 어, 벌써 끝났네.
• 날씨가 참 좋군.

(2)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쓴다.

- 예 •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 이야, 정말 재밌다!
• 지금 즉시 대답해!
• 앞만 보고 달리자!

(3)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 예 • 이게 누구야!
• 내가 왜 나빠!

(4)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쓴다.

- 예 • 네!
• 네, 선생님!
• 흥부야!
• 언니!

4. 쉼표(,) : ‘쉼표’ 대신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1)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 예 •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 집을 보러 가면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 살기에 편한지, 망가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이다.

▶ 단,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 예 •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 네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만 원도 안 되겠다.

▶ 단,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 예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2)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 예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3)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 예 5, 6세기 6, 7, 8개

(4)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 예 •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 예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저는 신뢰와 정직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온바, 이번 비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떡국은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걸 먹어야 비로소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출제 키워드 문제

03 다음 중 반점(,)의 쓰임이 가장 잘못된 것은? 2007. 법원직 9급

- ①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 동사, 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 ② 제시어 다음에 쓴다. :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 ③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쓴다. :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 ④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 는 상극이다.

출제 당시에는 ①이 답으로,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가 옳은 표기였다. 그러나 2014년 10월 27에 고시된 한글 맞춤법 개정안에 따르면,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쓰는 것도 허용되므로 ‘동사, 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도 적절한 표기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답이 없다.

(6)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예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7)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예 • 지은아, 이리 좀 와 봐.
• 네, 지금 가겠습니다.

(8)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예 •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한 예의, 즉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 호준이 어머니, 다시 말해 나의 누님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된다.
• 나에게도 작은 소망, 이를테면 나만의 정원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9)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예 • 돈,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 열정, 이것이야말로 젊은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 지금 네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한번 내겠어.
• 그 사실, 넌 알고 있었지?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예 그의 애국심,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예 • 이리 오세요, 어머님.
• 다시 보자, 한강수야.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예 •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예 •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 영호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들을 맞았다.

붙임 1. 이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예 •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 영호는 미소를 띠고 —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 그들을 맞았다.

2.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 있을 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쓴다.

예 이걸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예 •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예 선생님, 부,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 가운뎃점(·)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 예 • 민수 · 영화, 선미 · 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 지금의 경상남도 · 경상북도, 전라남도 · 전라북도, 충청남도 · 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2)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 예 • 한(韓) ·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 우리는 그 일의 참 ·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 하천 수질의 조사 · 분석
• 빨강 · 초록 ·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 단,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 예 •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 예 • 상 · 중 · 하위권
• 금 · 은 · 동메달
• 통권 제54 · 55 · 56호

붙임 이때는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 예 • 상, 중, 하위권
• 금, 은, 동메달
• 통권 제54, 55, 56호

6. 쌍점(：)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 예 •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 일사: 2014년 10월 9일 10시
•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2)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 예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 예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두시연해 6:15(두시연해 제6권 제15장)

(4) 의존 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 예 65:60(65 대 60)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7. 빗금(/)

(1)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그 사이에 쓴다.

- 예 • 먹이다/먹히다 남반구/북반구
• 금메달/은메달/동메달 ()이/가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이다.

쌍반점(；)

‘세미콜론’이라 하며, 문장을 일단 끊었다가 설명을 이어서 계속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예를 들거나 설명을 추가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쌍반점은 한국어 문장 부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출제 키워드 문제

04 문장 부호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것은?

2010. 지방직 7급

- ①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 ②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 ③ 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 ④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② 직접 인용에는 큰따옴표(“ ”)를 쓴다.

(2)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쓴다.

예 100미터/초 1,000원/개

(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단, 연이 바뀔 때를 두 번 겹쳐 쓴다.

예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붙임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8. 큰따옴표(“ ”)

(1)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예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예 •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9. 작은따옴표(‘ ’)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2)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예 •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 ‘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어.’ 호연이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10. 소괄호(())

(1)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예 • 니체(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 2014. 12. 19.(금)

•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2)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예 • 기호(嗜好), 자세(姿勢)

•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3) 생각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부를 때는 이름 뒤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다.

(4) 희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

예 • 현우: (가쁜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빨리 뛰어?

• “관찰한 것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상력이 생겼나 봐요.” (웃음)

(5)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 우리나라의 수도는 ()이다.

• 다음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쓰시오.

민수가 할아버지() 꽃을 드렸다.

(6)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쓴다.

예 • 사람의 인격은 (1) 용모, (2) 언어, (3) 행동, (4) 덕성 등으로 표현된다.

• (가) 동해, (나) 서해, (다) 남해

11. 중괄호({ })

(1)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예 주격 조사 { 이, 가 } 국가의 성립 요소 { 영토, 국민, 주권 }

(2)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

예 아이들이 모두 학교(예, 로, 까지) 갔어요.

12. 대괄호([])

(1)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예 •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윤석중 전집(1988), 70 쪽 참조]

•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예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3)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예 • 그것[한글]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 신경준의 《여암전서》에 “삼각산은 산이 모두 둘 봉우리인데, 그 으뜸 봉우리를 구름 위에 솟아 있다고 백운(白雲)이라 하며 [이하 생략]”

•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원문에는 ‘업다’임.]

13. 겹낫표(ㄱ)와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 『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붙임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출제 키워드 문제

05 다음 중 문장 부호가 잘못된 것은?

2003. 서울시 9급

- ①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 ②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 ③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 ④ 손발(手足)
- ⑤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06 문장 부호를 옳게 사용한 것은?

2011. 지방직 9급

- ①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 ②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 하려?
- ③ 문장 부호－마침표·쉼표·따옴표·물음표 등
- ④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05 ④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쓰므로 ‘손발[手足]’로 써야 한다.

06 출제 당시에는 ④가 답이었으나, 2014년 10월 27일에 고시된 한글 맞춤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도 답이 된다.

① 출제 당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써야 하므로 잘못된 표기였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하므로, 현재는 옳은 표기로 인정된다.

▶ 오답 체크

②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 하려?－물음표는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③ 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물음표 등－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 때에는 쌍점(:)을 쓰며,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는 쉼표(,)를 쓴다.

18. 드러냄표(`)와 밑줄(_)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 예 •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붙임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 예 •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19. 숨김표(○, ×)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 예 •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 예 •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이다.
 •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였다.

20. 빠짐표(□)

(1)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 예 大師爲法主□□賴之大□藤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 예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21.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

-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 예 “빨리 말해!”
 “…….”

(3)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 예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 예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눈물만…… 흘렸다.”

붙임

1.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

- 예 •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2.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 예 •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3.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3)에서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